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활용한
테러리즘의 현황분석

한 인 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평화협력연구부장)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활용한
테러리즘의 현황분석

목 차

I. 서론.....	1
II. 전 세계적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	6
III. 지역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11
IV.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테러 고위험국가 프로파일	21
V. 결론 및 요약	52
〈참고 자료 및 문헌〉	55

....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테러리즘에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사용하여, 각 지역과 국가에 존재하는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였다. 양적 데이터를 통해 본 테러리즘의 위협은, 시기별,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종종 유형과 대상 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테러리즘의 위협은 최근에 급증한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이는 시간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어: 테러리즘, 테러유형, 테러추세, 테러대상, **Global Terrorism Database**

I. 서론

오늘날의 동북아에서는 핵무기나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가 역내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다른 시기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평화와 협력에 대한 주된 저해요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9년 현재 육지의 56%에 해당하는 지역에 비핵(무기)지대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는 현존하는 국가의 60%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에게는 인근 국가로부터의 핵무기 위협은 실질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비핵(무기)지대에는 인간이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남극, 해저, 우주공간도 포함되어서, 물리적으로 보면 핵무기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와 공간이 훨씬 광대하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도 마찬가지로여서, 동북아처럼 과거사나 영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서유럽처럼 과거사나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협력, 나아가 정치적 경제적 통합까지 달성한 지역도 있다. 즉,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또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동북아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평화와 협력에 대한 위협의 다양성이나 변화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나 연구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테러리즘은 지난 몇 년간 주로 다른 지역 -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2014년은 테러리즘이 절정에 달했던 해로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32,68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의 수치는 2000년에 비해 9배 증가한 것이고, 2013년의 사망자 18,111명보다도 80%가 증가하여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¹

테러리즘은 2014년에 절정에 달한 후 횡수에 있어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2015년에는 65개국에서 테러리

¹ 테러에 의한 사망자 수는 암이나 교통사고 등 잘 알려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는 훨씬 작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약 130 만명이다. 하지만 암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은 테러처럼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난민사태를 야기하지 않는다. 테러리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사회적 효과는 질병이나 사고에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² 2016년에는 그보다 12개국이 증가한 77개국에서 테러리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즉, 2016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 약 2/3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³ 특히 OECD 국가들에서는 2014년 이후 테러공격이 67%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거의 6배 증가하였다. 9·11 사태가 발생했던 2001년 이래로 가장 많은 테러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3년간 OECD 국가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자 중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망의 92%가 ISIS와 관련되었다.

테러리즘은 그동안 우리가 우려하여 왔고 대응하여 왔던 평화와 협력에 대한 위협 요인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위협이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의 이해나 연구도 부족하고 대응 전략이나 역량도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테러리즘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중견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방관할 수 없다.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무성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전 세계 각지의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해서 매년 보고서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舊 『Patterns of Global Terrorism』)로 발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자국의 정부, 기업, 국민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⁴ 이제는 우리도 정부, 기업, 국민이 각 지역과 국가에서 직면하게 되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테러리즘의 추세나 유형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테러리즘을,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거나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² 2017 Global Terrorism Index, <http://visionofhumanity.org/app/uploads/2017/11/Global-Terrorism-Index-2017.pdf>

³ 테러로 인한 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 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⁴ 미 국무성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j/ct/rls/crt/>

리스크를 잘 파악하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러리즘의 추세나 유형을 지역별, 국가별, 시기별로 이해할 수 있다면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노출을 줄여서 우리 기업의 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그동안 테러위험지역으로 대중적으로는 잘못 인식이 되어왔으나 실제로는 안전하고 성장잠재성도 높은 지역과는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실제로는 테러의 위험이 높은데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중적으로 잘못 인식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테러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테러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은 *open-source data*를 사용해서,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정리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이 테러의 위험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테러리즘은 모호성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념이다. 정확히 무엇이 테러인지 그리고 테러가 전투행위나 독립투쟁, 저항 등 다른 종류의 행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대답은 없다. 중국 정부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설립할 때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테러행위’라 비난하여 한국과 중국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테러리즘을 일본의 입장에서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해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시각과 관점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지만 최근 *open-source data*가 풍부해지고 *big data*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전하면서 정보수집의 문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The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이하 START)에서 Global Terrorism Database(이하 GTD)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Global Terrorism Index 등의 지수가 작성되고 있다.⁶ START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구축한 GTD를 무료로 공개하여

⁵ 이러한 목적의 선행연구로 필자가 수행한 “아프리카 지역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실패와 테러리즘을 중심으로”(2016)이 있다. 이 연구는 2016년 연구를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한 것이다.

⁶ 김은영, 박선영. (2013).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의 START 센터의 모범사례의 소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5권, 7-36.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GTD에서는 테러공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threatened or actual use of illegal force and violence by a non-state actor to attain a political, economic, religious, or social goal through fear, coercion, or intimidation”⁷

즉, 공포, 강압, 또는 협박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무력과 폭력의 사용위협이나 실제사용을 테러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비국가행위자가 아닌 정규군 등에 의한 폭력의 사용은 테러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합법적인 무력이나 폭력의 실제사용이나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테러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인 합법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도 또한 테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정신병자가 휘두르는 폭력은 테러가 아니다.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여 GTD에서는 어떤 사건에서 다음의 3가지 속성이 모두 발견될 때에만 테러사건으로 분류하였다.

- 해당 사건은 반드시 의도적이어야 한다.
- 해당 사건에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폭력이나 직접적인 폭력의 위협이 수반되어야 한다.
- 해당 사건의 행위자는 반드시 국가 내부의 행위자 (비국가행위자)이다.

⁷ GTD Codebook: Inclusion Criteria and Variables, June 2017, p.9.

추가로 다음의 3가지 기준 중에서 적어도 2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GTD에서는 테러사건으로 분류하였다.

- 기준 1: 해당 행위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기준 2: 직접 피해를 입은 희생자보다 더 많은/더 커다란 타깃을 대상으로 강압, 협박,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 기준 3: 해당 행위는 정당한 전쟁행위의 범위 밖에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GTD를 사용하여, 각 지역과 국가에 존재하는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 전 세계적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 지역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II. 전 세계적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

전 세계적 테러발생 건수 및 국가 수 (2006–2016)

연도	테러발생 건수	테러발생 국가 수
2006	2,751	71
2007	3,241	76
2008	4,788	91
2009	4,722	82
2010	4,819	72
2011	5,065	75
2012	8,491	81
2013	11,999	92
2014	16,818	98
2015	14,806	94
2016	13,488	108

위의 표는 2006년부터 11년간 테러의 발생 건수와 테러가 발생한 국가 수를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사용하여 집계한 것인데, 테러의 발생 건수는 2014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2,751 건이었던 테러가 2014년에는 16,818 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14,806 건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13,488 건으로 조금 더 감소하였다. 테러가 발생한 국가는 2006년 71개국에서 2014년에는 98개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94개국으로 집계되었다가 2016년에는 108개국으로 증가하였다.⁸ 2015년 이후 테러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추세로 정착하게 될지, 그리고 2016년과 같은 테러발생국 확산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⁸ Global Terrorism Database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데, 업데이트 시 직전연도의 테러리즘 정보를 새로이 입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정보를 수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database의 연도별로 같은 해에 해당하는 테러리즘 정보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전 세계적 테러 사망자 및 부상자 수 (2006–2016)

연도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06	9,359	15,552
2007	12,833	22,430
2008	9,092	18,797
2009	9,270	19,128
2010	7,719	15,780
2011	8,198	14,618
2012	15,431	25,500
2013	22,225	37,643.5
2014	43,550	40,989.5
2015	38,422	43,495
2016	34,676	39,851

*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를 표시하는 데 소수가 사용되는 기술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Global Terrorism Database Codebook 48 페이지를 참조. <https://www.start.umd.edu/gtd/downloads/Codebook.pdf>

Global Terrorism Database에 따르면 테러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06년 9,359 명에서 2014년에는 43,550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38,422명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34,676명으로 더 감소하였다. 연간 증가율을 보면 2014년에 사망자가 전년대비 약 2배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테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6년, 15,552명에서 2015년, 43,495명으로 3.4배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43,495명으로 더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39,851명으로 좀 더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다음의 두 표는 2016년 그리고 2006년 발생한 테러공격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은 폭탄테러로서 2016년에는 전체 테러의 52.45%, 2006년에는 전체 테러의 54.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흔한 공격 유형은 무장공격으로서 2016년에는 전체 테러의 20.11%, 2006년에는 전체 테러의 26.81%를 차지했다.

전 세계적 테러공격의 유형 (2016년)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2,713	20.11
Assassination	815	6.04
Bombing/Explosion	7,075	52.45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688	5.10
Hijacking	43	0.32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60	0.44
Hostage Taking (Kidnapping)	1,109	8.22
Unarmed Assault	70	0.52
Unknown	915	6.78
합 계	13,488	100.00

전 세계적 테러공격의 유형(2006)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737	26.81
Assassination	140	5.09
Bombing/Explosion	1,500	54.57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07	3.89
Hijacking	3	0.11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7	0.25
Hostage Taking (Kidnapping)	201	7.31
Unarmed Assault	15	0.55
Unknown	39	1.42
합계	2,749	100.00

이들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난 11년간 테러의 발생 건수는 약 5배, 테러발생 국가 수는 약 50%가 증가하였지만 테러공격의 유형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의 두 표는 2016년 그리고 2006년 발생한 테러공격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흔한 공격대상은 민간인과 사유재산으로서 2016년에는 전체 테러대상의 31.26%, 2006년에는 전체 테러대상의 30.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흔한 공격대상은 2016년

에는 군대, 2006년에는 경찰로서 다르게 나타났다. 2016년 전체 테러의 19.08%가 군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2006년에는 전체 테러의 17.31%가 경찰을 대상으로 했다. 경찰은 2016년의 경우에 세 번째로 흔한 공격대상 (12.54%)이었고, 군대는 2006년 경우에 5번째로 흔한 공격대상 (8.33%)으로 나타났다. 연도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는 했지만 군대와 경찰은 민간인과 사유재산에 다음으로 공격을 많이 받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 테러공격의 대상(2016년)

대상	빈도수	%
Abortion Related	1	0.01
Airports & Aircraft	29	0.22
Business	915	6.78
Educational Institution	212	1.57
Food or Water Supply	10	0.07
Government (Diplomatic)	92	0.68
Government (General)	1,014	7.52
Journalists & Media	138	1.02
Maritime	32	0.24
Military	2,574	19.08
NGO	47	0.35
Other	139	1.03
Police	1,692	12.54
Private Citizens & Property	4,217	31.26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292	2.16
Telecommunication	46	0.34
Terrorists/Non-State Militia	315	2.34
Tourists	8	0.06
Transportation	225	1.67
Unknown	1,067	7.91
Utilities	344	2.55
Violent Political Party	79	0.59
합 계	13,488	100.00

전 세계적 테러공격의 대상(2006년)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5	0.18
Business	247	8.99
Educational Institution	86	3.13
Food or Water Supply	9	0.33
Government (Diplomatic)	42	1.53
Government (General)	372	13.53
Journalists & Media	41	1.49
Maritime	3	0.11
Military	229	8.33
NGO	23	0.84
Other	5	0.18
Police	471	17.13
Private Citizens & Property	850	30.92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94	3.42
Telecommunication	17	0.62
Terrorists/Non-State Militia	20	0.73
Tourists	15	0.55
Transportation	113	4.11
Unknown	23	0.84
Utilities	72	2.62
Violent Political Party	12	0.44
합 계	2,749	100

위의 두 표가 보여주는 것은 지난 11년간 테러의 발생 건수는 약 5배, 테러발생 국가 수는 약 50%가 증가하였지만, 그러한 양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테러공격의 유형 뿐만 아니라 테러공격의 대상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II. 지역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2016년 Global Terrorism Index 보고서는, 조사대상이 된 162개국 중 약 60%에 해당하는 95개국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전무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서방국가에서 발생한 테러 사망자는 9·11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테러 사망자의 0.5%에 불과하고, 9·11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해도 2.6%에 그친다고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과 1년 후에 발행된 2017년 Global Terrorism Index 보고서는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30개국에 불과하며, 특히 OECD 국가들에서 9·11 사태가 발생했던 2001년 이래로 가장 많은 테러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짧은 기간 중에 테러가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4년을 정점으로 2년 내내 감소하여,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사망자수가 22%, 6,827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테러리즘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는 특정 국가군—시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에서 현저하였고,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전년 대비 사망자수가 3,100명 감소하였다.

그동안 테러가 잘 발생하지 않던 OECD 국가로는 테러가 확산되고, 테러가 집중되었던 국가들에서는 테러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테러의 지역적 분포가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최근 1, 2년간의 변화가 테러의 지역적 분포를 크게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OECD 국가에서 발생한 테러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이다. 테러의 발생은 아직까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남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집중된 현상이다. 2016년 현재 이들 지역에 전체 테러공격의 84%, 테러로 인한 사망의 94%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남미/카리브지역은 테러로부터 가장 안전하여 전체 테러공격의 0.05%, 테러로 인한 사망의 0.05%만이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지역별 테러발생 건수 (2006-2016)

	북미	중미	남미	호주· 오세 아니 아	동아 시아	동남아 시아	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중동 북아프 리카	동 유럽	서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06	15	5	50	2	2	272	938	6	1,178	70	98	114
2007	19	4	47	1	0	364	981	4	1,385	62	72	302
2008	31	0	144	8	25	513	1,743	36	1,535	209	163	380
2009	15	9	159	1	8	562	1,946	31	1,361	165	181	283
2010	24	1	148	1	1	473	1,978	9	1,463	260	133	331
2011	12	1	106	0	4	353	2,135	9	1,663	198	93	494
2012	35	1	133	0	4	585	3,800	12	2,408	173	188	1,156
2013	31	14	179	1	14	1,186	4,606	7	4,546	165	253	989
2014	34	5	281	9	42	1,075	4,990	9	6,916	958	214	2,308
2015	62	1	175	7	27	1,062	4,568	9	5,956	684	321	1,939
2016	72	3	133	10	8	1,078	3,628	16	6,088	132	269	2,051

1) 남아시아: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Mauritius, Nepal, Pakistan, Sri Lanka

2) 중동과 북아프리카 (MENA): Algeria, Bahrain, Egypt, Iran, Iraq, Israel, Jordan, Kuwait, Lebanon, Libya, Morocco, Qatar, Saudi Arabia, Syria, Tunisia, Turkey, United Arab Emirates, West Bank and Gaza Strip, Western Sahara, Yemen

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Angola,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Ivory Coast,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epublic of the Congo, Rhodesia, Rwanda,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malia, South Africa, South Sudan, Sudan, Swaziland, Tanzania, Togo, Uganda, Zaire, Zambia, Zimbabwe

이 표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한 테러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1) 지역별로 테러발생 수가 커다란 차이가 나며, (2) 그러한 차이는 지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최근 들어 테러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것은 대부분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남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테러의 발생 건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테러의 발생 건수에 있어서는 MENA와 남아시아가 1, 2위를 다투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경우는 한동안 MENA나 남아시아보다 상당히 떨어진 3위였다가 최근 들어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테러발생 건수가 114 건에서 2,308 건으로 거의 20배 이상 증가하여 이 기간 중 테러발생 건수의 증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물론 증가율로만 보면, 동아시아가 2006년에 2 건에서 2014년에 42 건, 2015년에 27 건으로 테러발생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가율에 있어서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를 앞지르나 절대 건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테러발생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지역별 테러공격의 유형(2016년)

1) 남아시아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864	23.81
Assassination	261	7.19
Bombing/Explosion	1,562	43.05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92	5.29
Hijacking	2	0.06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25	0.69
Hostage Taking (Kidnapping)	347	9.56
Unarmed Assault	34	0.94
Unknown	341	9.40
합계	3,628	100.00

2)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718	11.79
Assassination	170	2.79
Bombing/Explosion	4,262	70.01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30	2.14
Hijacking	8	0.13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8	0.13
Hostage Taking (Kidnapping)	380	6.24
Unarmed Assault	14	0.23
Unknown	398	6.54

합 계	6,088	100.00
-----	--------------	---------------

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696	33.93
Assassination	173	8.43
Bombing/Explosion	612	29.84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99	4.83
Hijacking	17	0.83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11	0.54
Hostage Taking (Kidnapping)	284	13.85
Unarmed Assault	6	0.29
Unknown	153	7.46
합 계	2,051	100.00

이 세 개의 표가 보여주는 것은 테러공격의 유형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MENA 지역에서는 폭탄테러가 전체 공격 유형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은 무장공격으로서 전체 공격의 33.93%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시아도 MENA처럼 폭탄테러가 가장 흔하지만, 전체 공격에서 폭탄테러의 비중은 40%를 조금 넘어서 MENA의 70.01%보다 낮다. 인질납치는 폭탄테러나 무장공격의 다음으로 흔한 유형이나 그 비중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85%, 남아시아 9.56%, MENA 6.24%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테러공격의 대상(2016년)

1) 남아시아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5	0.14
Business	165	4.55
Educational Institution	117	3.22
Food or Water Supply	4	0.11
Government (Diplomatic)	15	0.41

Government (General)	311	8.57
Journalists & Media	38	1.05
Military	543	14.97
NGO	16	0.44
Other	4	0.11
Police	811	22.35
Private Citizens & Property	874	24.09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85	2.34
Telecommunication	29	0.80
Terrorists/Non-State Militia	54	1.49
Tourists	1	0.03
Transportation	86	2.37
Unknown	394	10.86
Utilities	28	0.77
Violent Political Party	48	1.32
합 계	3,628	100.00

2) MENA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12	0.20
Business	498	8.18
Educational Institution	53	0.87
Food or Water Supply	4	0.07
Government (Diplomatic)	9	0.15
Government (General)	232	3.81
Journalists & Media	49	0.80
Maritime	7	0.11
Military	1,320	21.68
NGO	4	0.07
Other	53	0.87
Police	519	8.52
Private Citizens & Property	2,245	36.88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78	1.28
Telecommunication	1	0.02
Terrorists/Non-State Militia	251	4.12

Tourists	3	0.05
Transportation	66	1.08
Unknown	519	8.52
Utilities	153	2.51
Violent Political Party	12	0.20
합 계	6,088	100.00

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10	0.49
Business	95	4.63
Educational Institution	11	0.54
Food or Water Supply	2	0.10
Government (Diplomatic)	47	2.29
Government (General)	190	9.26
Journalists & Media	11	0.54
Maritime	3	0.15
Military	477	23.26
NGO	19	0.93
Other	48	2.34
Police	130	6.34
Private Citizens & Property	775	37.79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38	1.85
Telecommunication	3	0.15
Terrorists/Non-State Militia	7	0.34
Tourists	1	0.05
Transportation	37	1.80
Unknown	44	2.15
Utilities	84	4.10
Violent Political Party	19	0.93
합 계	2,051	100.00

이 세 개의 표가 보여주는 것은 테러공격의 유형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테러공격의 대상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세 지역 모두에서 민간인과 사유 재산이 가장 흔한 공격 대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공권력 기관, 즉 군대나 경찰 또는 정부가 흔한 공격의 대상이었다.

이상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MENA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테러의 위협이 높은 지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나 국민의 방문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테러발생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흔한 테러의 대상은 민간인과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역에 따라서 공격 유형은 다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폭탄테러이든 무장공격이든 인질납치이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아시아나 MENA,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전 지역을 테러의 위협이 높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프리카는 54개국이 위치한 광대한 대륙이며, 2014년 현재 약 11억 명, 세계전체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있다. 남아시아에는 9개국이 위치하고 있고, 중동에도 10여 개의 국가가 위치하고 있다. 남아시아나 MENA 그리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위치한 70여 개 국가 중에서 실제로 테러가 집중되어 있는 국가는 소수이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테러로 인한 사망의 4분의 3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60여 개 국가에서는 테러의 위협이 훨씬 적고 사실상 전무한 경우도 있다. 다음의 표들은 2016년 각 지역 내에서 국가별 테러의 분포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내 국가별 테러의 분포현황 (2016년)

1) 남아시아

국가	빈도수	%
Afghanistan	1,615	44.51
Bangladesh	88	2.43
India	1,019	28.09
Maldives	1	0.03
Nepal	43	1.19
Pakistan	861	23.73
Sri Lanka	1	0.03
합 계	3,628	100.00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Mauritius, Nepal, Pakistan, Sri Lanka가 위치하고 있으나,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발생한 테러의 95% 이상이 Afghanistan, India, Pakistan에 집중되어 있었고, Bhutan이나 Mauritius에서는 테러의 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Bhutan이나 Mauritius는 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남아시아에서 Afghanistan, India, Pakistan 3국이 차지하는 면적이나 인구 규모로 볼 때 기타 국가에서는 거의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크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테러가 빈발하는 지역에서라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테러가 빈발하는 국가 내부에서도 지방에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 테러의 발생빈도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MENA

국가	빈도수	%
Algeria	9	0.15
Bahrain	3	0.05
Egypt	365	6.00
Iran	10	0.16
Iraq	3,356	55.12
Israel	50	0.82
Jordan	9	0.15
Kuwait	2	0.03
Lebanon	41	0.67
Libya	417	6.85
Saudi Arabia	124	2.04
Syria	472	7.75
Tunisia	12	0.20
Turkey	540	8.87
West Bank and Gaza Strip	157	2.58
Yemen	521	8.56
합 계	6,088	100.00

중동·북아프리카 (MENA) 지역의 경우, 2016년 발생한 테러의 55% 이상이 Iraq에 집중되어 있다. 이외에 Egypt, Libya, Syria, Turkey 에서도 300~400 건의 테러가 발생하였으나 비중으로 보면 모두 10% 이하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테러가 10 건 이하로 발생한 국가도 적지 않으며(Algeria, Bahrain, Jordan, Kuwait 등), 테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위의 표에 들어가지 않은 ‘테러청정국가’도 존재한다. 2016년의 경우 Morocco, Qatar, United Arab Emirates 가 그러한 국가에 해당한다.

중동·북아프리카도 남아시아도 모두 테러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역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테러의 위협이 높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앞의 두 표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경향은 남아시아에서보다는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더 잘 나타났다.

3)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빈도수	%
Angola	2	0.10
Burkina Faso	10	0.49
Burundi	83	4.05
Cameroon	54	2.63
Central African Republic	34	1.66
Chad	5	0.24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69	8.24
Ethiopia	13	0.63
Ghana	1	0.05
Guinea	1	0.05
Ivory Coast	1	0.05
Kenya	65	3.17
Madagascar	1	0.05
Mali	98	4.78
Mozambique	78	3.80
Niger	23	1.12
Nigeria	531	25.89

Republic of the Congo	13	0.63
Rwanda	1	0.05
Sierra Leone	1	0.05
Somalia	590	28.77
South Africa	27	1.32
South Sudan	59	2.88
Sudan	173	8.43
Tanzania	3	0.15
Uganda	15	0.73
합 계	2,051	100.0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Nigeria와 Somalia에서 발생한 테러가 이 지역 전체에서 발생한 테러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Nigeria와 Somalia에서는 각기 Boko Haram과 Al-Shabab가 알려진 테러의 대부분을 저지르고 있다.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와 Sudan을 제외하면 테러발생 건수가 연 100회를 넘은 국가는 없으며, 테러발생 건수가 일 년에 한 자리 수인 경우도 많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에 테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표에 아예 포함 되지 않은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아래는 2016년에 테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의 명단이다.

테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국가 (2016년)

Benin, Botswana, Comoros,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Gabon, Gambia, Guinea-Bissau, Lesotho, Liberia, Malawi, Mauritania, Namibia, Senegal, Seychelles, Swaziland, Togo, Zaire, Zambia, Zimbabwe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을 단위로 특정 지역은 테러의 위험이 크고 특정 지역은 테러의 위험이 작다고 결론짓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예컨대 Boko Haram에 의한 테러공격이나 납치-이 마치 아프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처럼

인식되는 경향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테러리즘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분석 단위는 ‘지역’보다는 ‘국가’나 ‘테러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테러는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테러는 Boko Haram이나 ISIS, Taliban, Al-Qaida 같은 몇몇 테러집단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이다.

IV.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테러 고위험국가 프로필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가 발행한 2017년도 판 『Global Terrorism Index』에서는 국가별로 테러리즘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였다. 총 134개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아래는 테러리즘의 위험성이 높은 상위 10개국의 리스트이다. (참고로 한국은 총 134개국 중 103위를 차지하여, 테러리즘의 위험성이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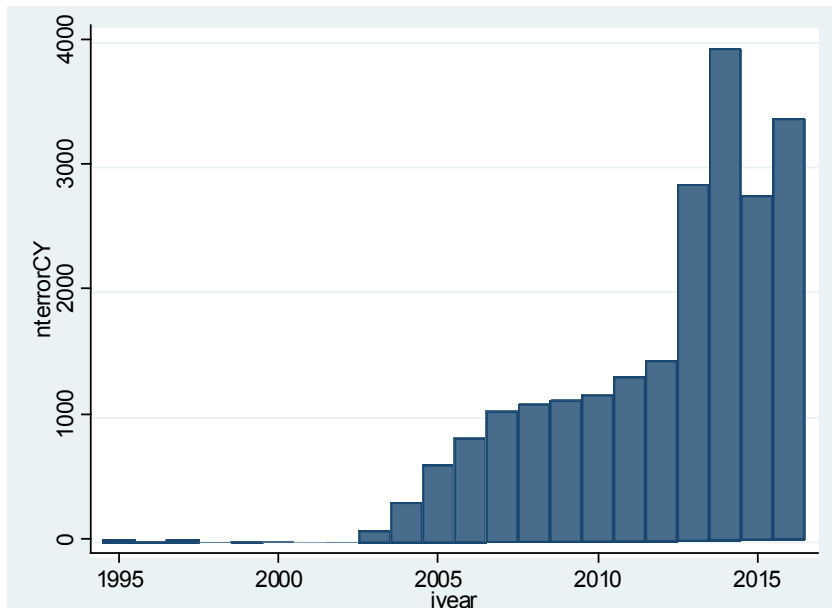
1. Iraq
2. Afghanistan
3. Nigeria
4. Syria
5. Pakistan
6. Yemen
7. Somalia
8. India
9. Turkey
10. Libya

이들 국가들은 모두 남아시아, MEN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1) Iraq

이라크는 2016년, 총 3,356 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2017년도 판 『Global Terrorism Index』에서 테러리즘의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라크에서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나서부터이다. 한동안 연 발생 건수가 2천 건을 넘지 못하다가 2013년에 급증하여 2,849 건의 테러가 발생하였고 (2012년의 경우는 1,437 건), 2014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3,926 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테러발생의 추세



(2) 테러집단

아래의 표는 2016년에 발생한 테러를 일으킨 집단의 이름이다. IS의 테러가 전체 테러의 36% 정도 (1,202 건)를 차지했고, 62% 정도 (2,099 건)는 누가 테러를 했는지 확

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름	빈도수	%
Asa'ib Ahl al-Haqq	53	1.58
Harakat al-Nujaba	1	0.03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1,202	35.82
Kata'ib Hezbollah	1	0.03
Kurdish Democratic Party-Iraq (KDP)	1	0.03
Kurdistan Workers' Party (PKK)	1	0.03
Muslim extremists	1	0.03
Popular Mobilization Forces (Iraq)	4	0.12
Tribesmen	2	0.06
Unknown	2,090	62.28
합계	3,356	100.00

(3) 테러공격의 유형

다음의 표는 2016년에 이라크에서 발생한 테러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폭탄테러가 80%를 넘는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이며 나머지 유형은 그 어느 것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168	5.01
Assassination	53	1.58
Bombing/Explosion	2,759	82.21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51	1.52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2	0.06
Hostage Taking (Kidnapping)	134	3.99
Unarmed Assault	1	0.03
Unknown	188	5.60
합계	3,356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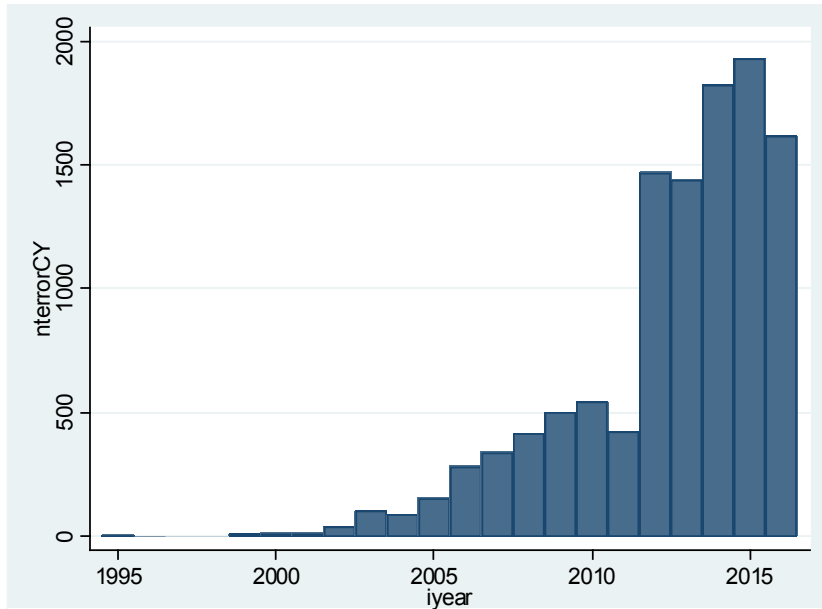
다음의 표는 2016년에 이라크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의 대상을 보여준다.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1	0.03
Business	400	11.92
Educational Institution	13	0.39
Food or Water Supply	2	0.06
Government (Diplomatic)	2	0.06
Government (General)	123	3.67
Journalists & Media	16	0.48
Military	459	13.68
NGO	1	0.03
Other	26	0.77
Police	175	5.21
Private Citizens & Property	1,430	42.61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33	0.98
Terrorists/Non-State Militia	151	4.50
Transportation	39	1.16
Unknown	364	10.85
Utilities	120	3.58
Violent Political Party	1	0.03
합 계	3,356	100.00

2)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은 2016년 총 1,615 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2017년도 판 『Global Terrorism Index』에서 테러리즘의 위험이 2번째로 높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연 1천 건 이상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이후이다. 그 전에는 대개 연 5백 건을 밑돌았다. 2015년에 사상 최고치인 1,927 건의 테러가 발생한 후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1) 테러발생의 추세



(2) 테러집단

아래의 표는 2016년에 발생한 테러를 일으킨 집단의 이름이다. Taliban의 테러가 전체 테러의 66% 정도 (1,061 건)를 차지했고, 30% 정도 (491 건)는 누가 테러를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즘의 문제는 결국 Taliban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름	빈도수	%
Haji Fateh	1	0.06
Haqqani Network	1	0.06
Hizb-I-Islami	2	0.12
Jaish-e-Mohammad (JeM)	1	0.06
Jundallah (Pakistan)	1	0.06
Khorasan Chapter of the Islamic State	56	3.47
Muslim extremists	1	0.06
Taliban	1,061	65.70
Unknown	491	30.40

합 계	1,615	100
-----	-------	-----

(3) 테러공격의 유형

다음의 표는 2016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테러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폭탄테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이며, 무장공격이 약 22%로 그 다음으로 흔한 공격 유형이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359	22.23
Assassination	118	7.31
Bombing/Explosion	640	39.63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32	1.98
Hijacking	2	0.12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4	0.25
Hostage Taking (Kidnapping)	145	8.98
Unarmed Assault	9	0.56
Unknown	306	18.95
합 계	1,615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다음은 2016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의 대상을 보여준다. 민간인과 사유재산, 경찰과 군대가 주요 타깃이라는 점에서는 특이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 타깃의 비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고, 군대와 경찰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4	0.25
Business	26	1.61
Educational Institution	29	1.80
Food or Water Supply	1	0.06
Government (Diplomatic)	11	0.68
Government (General)	141	8.73
Journalists & Media	16	0.99

Military	306	18.95
NGO	12	0.74
Other	1	0.06
Police	421	26.07
Private Citizens & Property	406	25.14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21	1.30
Telecommunication	3	0.19
Terrorists/Non-State Militia	28	1.73
Tourists	1	0.06
Transportation	28	1.73
Unknown	145	8.98
Utilities	13	0.80
Violent Political Party	2	0.12
합 계	1,615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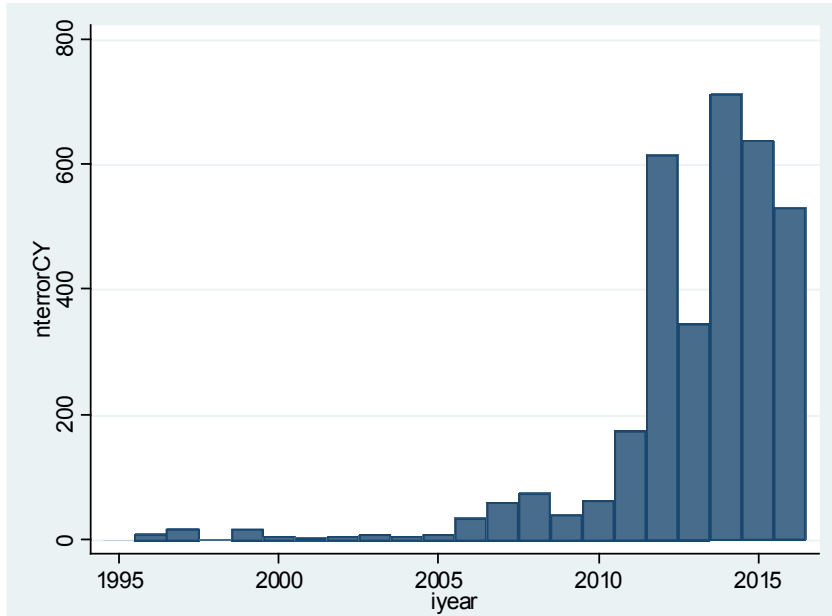
3) Nigeria

나이지리아에서는 2016년에는 531 건, 2015년에는 그보다 많았던 637 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나이지리아가 처음부터 테러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테러가 빈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인 2012년 이후부터이다. 그전에도 테러가 없지는 않았으나 한 해에 수십 회를 넘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의 면적이 한반도의 4.2배이고, 인구가 1억 7천만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년에 수십 회 정도의 테러공격이 반드시 많다고 할 수는 없다.

(1) 테러발생의 추세

아래의 그래프는 2005년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테러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테러가 급증하였으며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중동국가들처럼 ‘아랍의 봄’을 경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2012년을 기점으로 나이지리아에서도 테러가 급증하였는지

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2) 테러집단

나이지리아는 테러의 횡수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에 의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50% 이상이 Boko Haram과 Fulani extremists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에서 왜 테러가 많은지, 그리고 왜 2012년 이후 테러가 급증하였는지에 대한 대답은 우선 Boko Haram과 Fulani extremists 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름	빈도수	%
Boko Haram	167	31.45
Concerned Militant Leaders (CML)	3	0.56
Fulani extremists	152	28.63
Ijaw extremists	11	2.07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	2	0.38
Muslim extremists	2	0.38
Niger Delta Avengers (NDA)	49	9.23

Niger Delta Greenland Justice Mandate..	11	2.07
Niger Delta Justice Defense Group (ND..)	1	0.19
Niger Delta extremists	1	0.19
People's Democratic Party (PDP)	1	0.19
Red Egbesu Water Lions	1	0.19
Red Scorpion	1	0.19
Separatists	1	0.19
Unknown	128	24.11
합 계	531	100.00

(3) 테러공격의 유형

아래는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의 유형이다.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납치도 52회 발생했지만, 실제로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은 무장공격과 폭탄테러이었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240	45.20
Assassination	27	5.08
Bombing/Explosion	173	32.58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9	3.58
Hijacking	3	0.56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3	0.56
Hostage Taking (Kidnapping)	52	9.79
Unarmed Assault	1	0.19
Unknown	13	2.45
합 계	531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테러공격의 대상은 절반 정도가 개인과 사유재산이었다. 2016년의 경우 교육시설에 대한 공격이 1회에 불과하였다. Boko Haram이라는 이름이 “서구 교육은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하느니만큼 과거에는 교육시설에 대해 공격을 하고 여학생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어도 2016년도에는 그런 공격이 1회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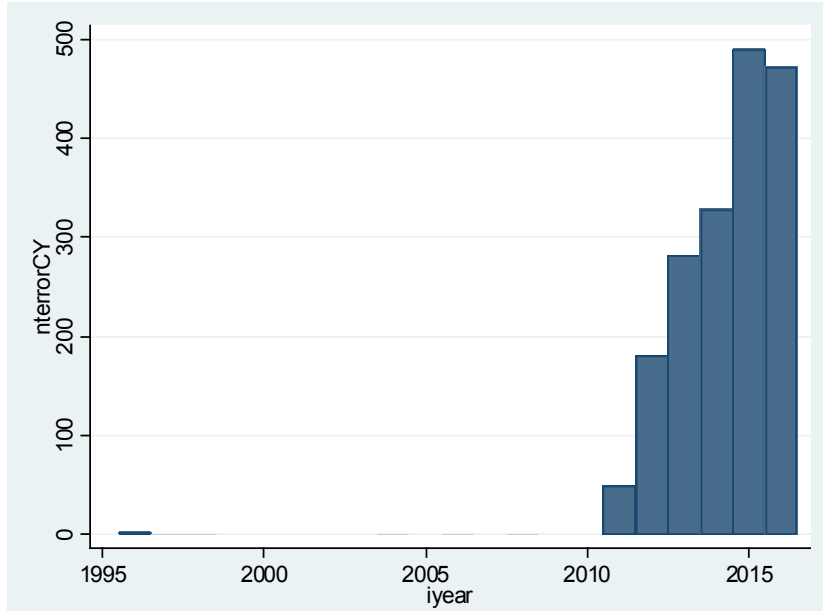
롭다. (이는 Boko Haram 에 의한 테러가 전체 테러의 31.45%만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과거에는 Boko Haram 에 의한 테러가 더 많았을 당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도 더 많았다.)

대상	빈도수	%
Business	12	2.26
Educational Institution	1	0.19
Government (Diplomatic)	1	0.19
Government (General)	28	5.27
Maritime	2	0.38
Military	46	8.66
NGO	1	0.19
Other	10	1.88
Police	25	4.71
Private Citizens & Property	285	53.67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14	2.64
Terrorists/Non-State Militia	4	0.75
Transportation	4	0.75
Unknown	14	2.64
Utilities	83	15.63
Violent Political Party	1	0.19
합 계	531	100.00

4) Syria

시리아에서는 2016년에 472 건의 테러, 그 전해인 2015년에는 다소 더 많은 490 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다. 시리아에서도 테러는 최근의 현상으로, 시기적으로 ‘아랍의 봄’과 그 이후의 사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어 보인다.

(1) 테러발생의 추세



(2) 테러집단

가장 비중이 큰 테러집단은 IS이지만 전체 테러의 1/3 이하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테러집단은 Al-Nusrah Front이다. 나머지 테러집단들은 전체 테러의 단지 몇 %, 또는 그 이하를 설명할 뿐이다.

이름	빈도수	%
Abu Amarah Battalion	1	0.21
Ahrar al-Sham	11	2.33
Ajnad al-Sham	1	0.21
Al-Nasir Army (Syria)	3	0.64
Al-Nusrah Front	60	12.71
Al-Sham Legion	3	0.64
Aleppo Fatah Operations Room	6	1.27
Authenticity and Development Front	1	0.21
Democratic Union Party (PYD)	2	0.42
Free Syrian Army	41	8.69

Hezbollah	1	0.21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149	31.57
Jaish al-Fatah (Syria)	8	1.69
Jaish al-Mujahideen (Syria)	2	0.42
Jaish al-Sunnah	2	0.42
Jaysh al-Islam (Syria)	19	4.03
Jund al-Aqsa	5	1.06
League of Damascus for Special Tasks	1	0.21
Muslim extremists	21	4.45
Nur-al-Din al-Zinki Movement	7	1.48
Shamiya Front	7	1.48
Shia Muslim extremists	1	0.21
Southern Front	14	2.97
Syrian Democratic Forces (SDF)	1	0.21
Syrian Turkmen Brigades	2	0.42
Turkestan Islamic Party	2	0.42
Unknown	101	21.40
합 계	472	100.00

(3) 테러공격의 유형

폭탄테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장공격이 많다는 점에서는 시리아도 크게 예외가 아니다. 세 번째로 흔한 테러공격은 인질납치이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57	12.08
Assassination	4	0.85
Bombing/Explosion	335	70.97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3	0.64
Hostage Taking (Kidnapping)	54	11.44
Unarmed Assault	1	0.21
Unknown	18	3.81
합 계	472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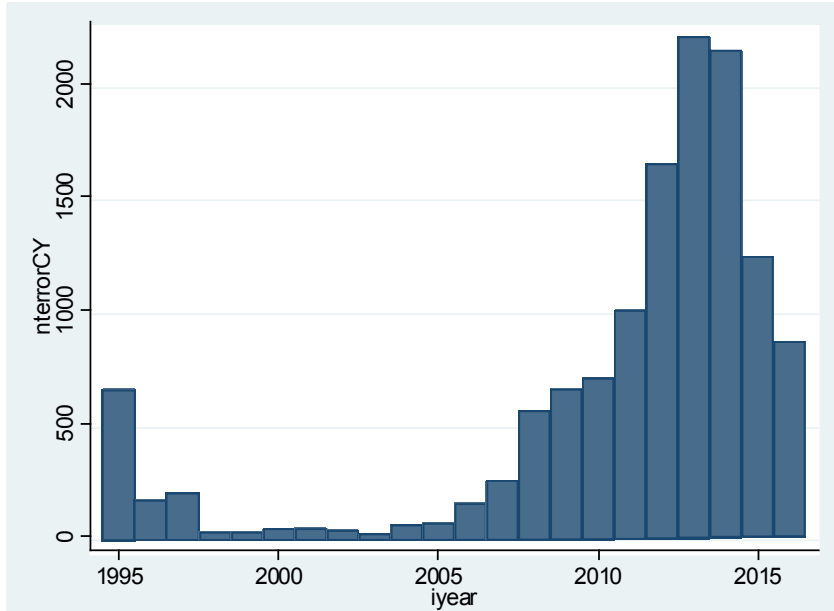
테러공격의 주된 대상이 민간인과 사유재산, 그 다음으로 군대라고 하는 점에서 시리아는 별로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2	0.42
Business	17	3.60
Educational Institution	11	2.33
Government (Diplomatic)	1	0.21
Government (General)	3	0.64
Journalists & Media	5	1.06
Military	114	24.15
NGO	2	0.42
Other	8	1.69
Police	4	0.85
Private Citizens & Property	265	56.14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6	1.27
Telecommunication	1	0.21
Terrorists/Non-State Militia	15	3.18
Transportation	7	1.48
Unknown	7	1.48
Utilities	4	0.85
합 계	472	100.00

5) Pakistan

파키스탄에서는 2016년, 총 861 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1,238 건의 테러가 발생한 2015년보다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파키스탄에서 연 5백 건 이상의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으로 그 이후로는 2014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2천 건이 넘다가 최근 3년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에는 연 1천 건 아래로 떨어졌다.

(1) 테러발생의 추세



(2) 테러집단

확인되지 않은 테러집단이 저지른 테러가 전체 테러의 67%를 차지하고 Taliban 에 의한 테러는 전체 테러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테러집단은 그 비중이 몇 %, 경우에 따라서는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름	빈도수	%
Al-Qaida in the Indian Subcontinent	5	0.58
Baloch Liberation Army (BLA)	23	2.67
Baloch Liberation Front (BLF)	34	3.95
Baloch Nationalists	1	0.12
Baloch Republican Army (BRA)	21	2.44
Baloch Republican Guards (BRG)	1	0.12
Halqa-e-Mehsud	10	1.16
Jaish al-Umar (JaU)	1	0.12
Jaish-e-Islam	2	0.23
Khorasan Chapter of the Islamic State	31	3.60

Lashkar-e-Balochistan	2	0.23
Lashkar-e-Islam (Pakistan)	6	0.70
Lashkar-e-Jhangvi	21	2.44
Muslim extremists	2	0.23
Muttahida Qami Movement (MQM)	3	0.35
Sindh Revolutionary Army	1	0.12
Sindhu Desh Liberation Army (SDLA)	3	0.35
Sindhudesh Revolutionary Army (SRA)	1	0.12
Taliban	3	0.35
Tehrik-i-Taliban Pakistan (TTP)	96	11.15
Tribesmen	3	0.35
United Baloch Army (UBA)	14	1.63
Unknown	577	67.02
합 계	861	100.00

(3) 테러공격의 유형

테러공격의 유형은 폭탄테러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무장공격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패턴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274	31.82
Assassination	83	9.64
Bombing/Explosion	426	49.48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9	1.05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6	0.70
Hostage Taking (Kidnapping)	55	6.39
Unknown	8	0.93
합 계	861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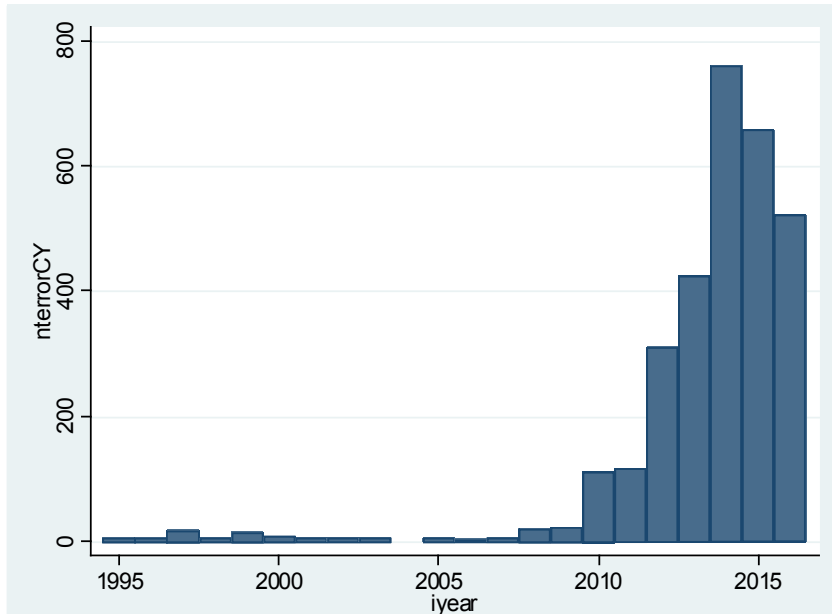
피해대상도 경찰, 민간인과 사유재산, 군대의 순으로 일반적인 경향을 벗어나지 않는다.

대상	빈도수	%
Business	40	4.65
Educational Institution	32	3.72
Food or Water Supply	2	0.23
Government (Diplomatic)	4	0.46
Government (General)	70	8.13
Journalists & Media	7	0.81
Military	142	16.49
Other	3	0.35
Police	182	21.14
Private Citizens & Property	172	19.98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32	3.72
Telecommunication	5	0.58
Terrorists/Non-State Militia	20	2.32
Transportation	27	3.14
Unknown	99	11.50
Utilities	13	1.51
Violent Political Party	11	1.28
합 계	861	100.00

6) Yemen

예멘에서는 2016년 총 521 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658 건이 발생한 2015년에 비해 테러가 약간 감소하였다. 다른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예멘에서도 테러의 발생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아랍의 봄’ 이후 급증하였다.

(1) 테러발생의 추세



(2) 테러집단

가장 비중이 큰 집단은 Houthi extremists (Ansar Allah)인데 이들을 테러집단으로 봐야 하는지 반군으로 봐야 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름	빈도수	%
Adan-Abyan Province of the Islamic St..	31	5.95
Al Bayda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1	0.19
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	82	15.74
Hadramawt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9	1.73
Houthi extremists (Ansar Allah)	283	54.32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1	0.19
Lahij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1	0.19
Muslim extremists	3	0.58
Popular Resistance Committees (Yemen)	1	0.19
Sanaa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1	0.19
Supporters of Abd Rabbuh Mansur Hadi	2	0.38

Unknown	106	20.35
합 계	521	100.00

(3) 테러공격의 유형

공격 유형에 있어서 폭탄테러가 가장 흔한 유형이고 다음으로는 암살이다. 암살의 비율이 높다는 면에서 예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50	9.60
Assassination	61	11.71
Bombing/Explosion	275	52.78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3	0.58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1	0.19
Hostage Taking (Kidnapping)	35	6.72
Unknown	96	18.43
합 계	521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하지만 공격의 대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테러공격의 대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군대에 대한 공격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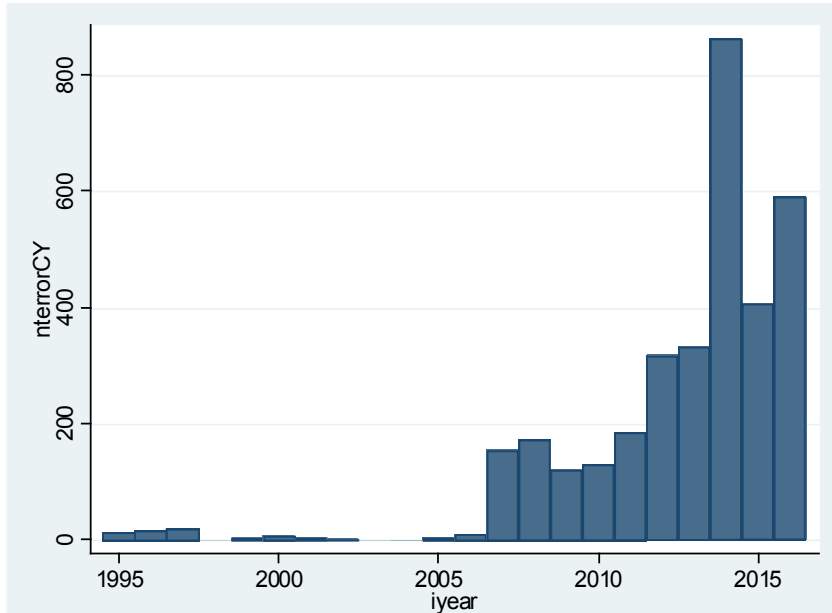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3	0.58
Business	10	1.92
Educational Institution	4	0.77
Government (General)	27	5.18
Journalists & Media	10	1.92
Maritime	6	1.15
Military	180	34.55
Police	32	6.14

Private Citizens & Property	168	32.25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9	1.73
Terrorists/Non-State Militia	37	7.10
Transportation	2	0.38
Unknown	22	4.22
Utilities	3	0.58
Violent Political Party	8	1.54
합 계	521	100.00

7) Somalia

소말리아는 2016년에 총 590 건, 2015년에 총 407 건의 테러공격을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제4위의 테러발생국이 되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소말리아의 경우는 테러의 발생빈도가 2012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14년에 급증하였다가 2015년에는 다시 이전 수준 비슷하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근소하게 증가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다. 리비아나 이집트처럼 아랍의 봄이나 그 여파의 영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2014년에 테러발생이 급증하였는지는 분석이 필요한 문제이다.

(1) 테러발생의 추세



(2) 테러집단

테러집단에 있어서 소말리아는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보다도 훨씬 더 현저하게 특정 집단의 비중이 크다. Al-Shabaab이 2016년 이후 발생한 테러의 84% 정도를 저질렀다. 그에 비하면 다른 테러집단의 활동은 미미하다. 따라서 Al-Shabaab에 대한 이해 없이 소말리아의 테러에 관한 이해는 어려워 보인다.

이름	빈도수	%
Ahlu-sunah Wal-jamea (Somalia)	3	0.51
Al-Shabaab	496	84.07
Jabha East Africa	3	0.51
Unknown	88	14.92
합 계	590	100.00

(3) 테러공격의 유형

테러공격 유형으로 폭탄테러가 1위이고 무장공격이 2위이다. 다음으로 암살과 인질납치가 있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155	26.27
Assassination	78	13.22
Bombing/Explosion	254	43.05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5	2.54
Hijacking	4	0.68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3	0.51
Hostage Taking (Kidnapping)	46	7.80
Unknown	35	5.93
합 계	590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테러의 공격 대상은 군과 정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일반 시민과 사유재산은 1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기관에 대한 공격 비율은 0.68%로서 상당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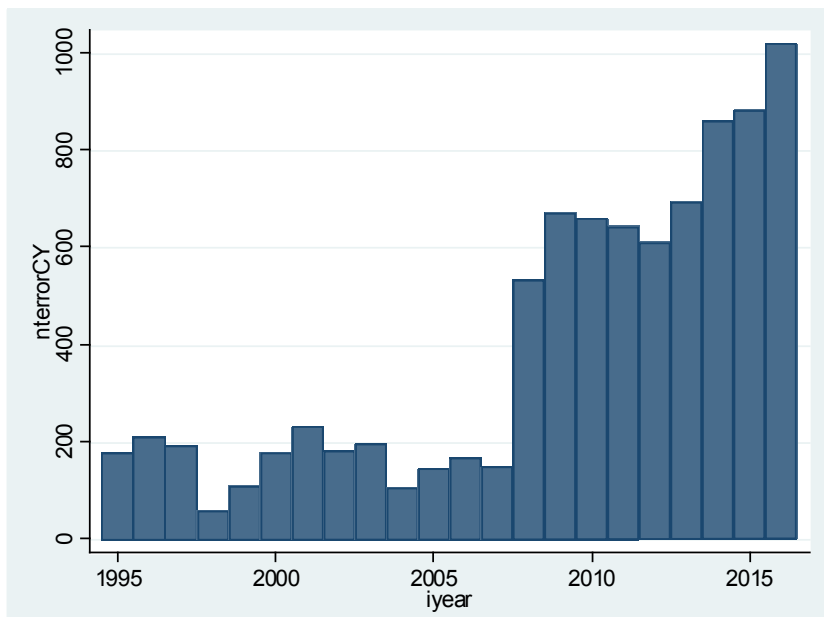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8	1.36
Business	39	6.61
Educational Institution	4	0.68
Food or Water Supply	1	0.17
Government (Diplomatic)	4	0.68
Government (General)	91	15.42
Journalists & Media	4	0.68
Maritime	1	0.17
Military	267	45.25
NGO	3	0.51
Other	1	0.17
Police	27	4.58
Private Citizens & Property	112	18.98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3	0.51

Terrorists/Non-State Militia	2	0.34
Transportation	10	1.69
Unknown	13	2.20
합 계	590	100.00

8) India

인도에서는 2016년에 1,019 건의 테러가 발생해서 883 건이 발생한 2015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많은 국가들에서 2010년 이전에는 테러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인도에서는 1990년대에서부터 테러가 매년 100~200 건 발생하였으며, 2008년 들어서 처음으로 연 500 건 수준을 넘은 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 테러발생의 추세



(2) 테러집단

Maoists가 알려진 테러집단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며,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거나 군소 테러집단들이다. 테러집단 중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많다.

이름	빈도수	%
A'chik Matgrik Elite Force (AMEF)	1	0.10
Achik Matgrik Army (AMA)	1	0.10
Achik National Liberation Army (ANLA)	1	0.10
Achik Songna An'pachakgipa Kotok (ASAK)	6	0.59
Al-Umar Mujahideen	1	0.10
All Assam Revolutionary Army (AARA)	1	0.10
Base Movement	5	0.49
Bharatiya Janata Party	1	0.10
Bru National Liberation Front (BNLF)	1	0.10
Communist Party of India - Maoist (CPI-Maoist)	93	9.13
Coordination Committee (CORCOM)	1	0.10
Dashmesh Regiment	1	0.10
Democratic Youth Federation of India ..	2	0.20
Garo National Liberation Army	15	1.47
Hindu Illaignar Sena	1	0.10
Hindu extremists	3	0.29
Hizbul Mujahideen (HM)	15	1.47
Hynniewtrep National Liberation Counc..	1	0.10
Jaish-e-Mohammad (JeM)	2	0.20
Jammu and Kashmir Islamic Front	1	0.10
Jharkhand Janmukti Parishad (JJP)	1	0.10
Jharkhand Kranti Raksha Dal (Utari Ch..	1	0.10
Jharkhand Prastuti Committee (JPC)	2	0.20
Kangleipak Communist Party (KCP)	3	0.29
Kuki Independent Organization (KIO/KIA)	1	0.10
Kuki National Front (KNF)	4	0.39
Kuki Unification Frontal Organization..	1	0.10
Lashkar-e-Taiba (LeT)	16	1.57
Liberation of Achik Elite Force (LAEF)	1	0.10
Manipur Naga People's Army (MNPA)	5	0.49
Maoist Communist Party of Manipur	2	0.20

Maoists	268	26.30
Moran Tiger Force (MTF)	2	0.20
Muslim extremists	2	0.20
National Democratic Front of Bodoland..	6	0.59
National Revolutionary Front of Manip..	1	0.10
National Socialist Council of Nagalan..	16	1.57
National Socialist Council of Nagalan..	7	0.69
National Socialist Council of Nagalan..	1	0.10
People's Liberation Army (India)	3	0.29
People's Liberation Front of India	11	1.08
People's Revolutionary Party of K angl..	6	0.59
People's Revolutionary Party of K angl..	1	0.10
Revolutionary Communist Centre (RCC)	1	0.10
Separatists	10	0.98
Students Islamic Movement of India (S..	1	0.10
Tehrik al-Mojahedin	5	0.49
Tehrik-e-Hurriyat (TeH)	1	0.10
Thanthai Periyar Dravidar Kazhagam (T..	1	0.10
Tiwa Liberation Army	1	0.10
Tribal Revolutionary Army (TRA)	1	0.10
Tribesmen	2	0.20
United Democratic Liberation Army (UD..	2	0.20
United Jihad Council	1	0.10
United Liberation Front of Assam (ULFA)	24	2.36
United National Liberation Front (UNLF)	2	0.20
United Reformation Protest of India	1	0.10
Unknown	450	44.16
Vishwa Hindu Parishad (VHP)	1	0.10
Zeliangrong United Front	1	0.10
합 계	1,019	100.00

(3) 테러공격의 유형

테러리즘의 추세나 테러집단의 분포에서 인도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테러공격의 유형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폭탄테러가 가장 일반적

인 유형이고 그 다음이 무장공격과 인질납치이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198	19.43
Assassination	52	5.10
Bombing/Explosion	461	45.24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08	10.60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12	1.18
Hostage Taking (Kidnapping)	139	13.64
Unarmed Assault	24	2.36
Unknown	25	2.45
합 계	1,019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테러공격의 대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여서 민간인과 사유재산, 경찰이 제1, 제2의 공격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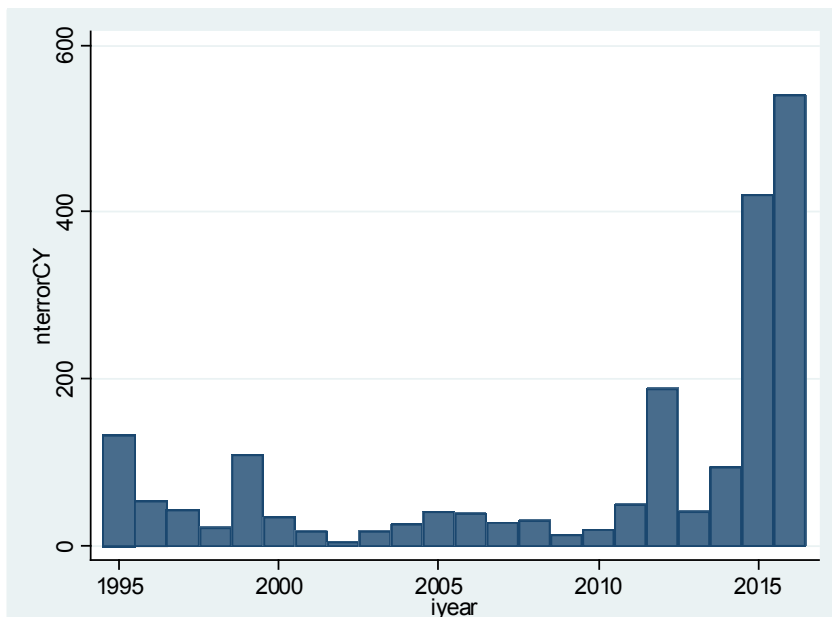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1	0.10
Business	91	8.93
Educational Institution	40	3.93
Food or Water Supply	1	0.10
Government (General)	93	9.13
Journalists & Media	13	1.28
Military	94	9.22
NGO	2	0.20
Police	195	19.14
Private Citizens & Property	253	24.83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19	1.86
Telecommunication	9	0.88
Terrorists/Non-State Militia	6	0.59
Transportation	27	2.65
Unknown	148	14.52
Utilities	2	0.20
Violent Political Party	25	2.45

합 계	1,019	100.00
-----	-------	--------

9) Turkey

터키는 2016년에 총 540 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421 건이 발생한 2015년에 비하여 테러가 증가하였다. 터키에서 4백 건이 넘는 테러가 발생한 것은 2015년이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100 건을 넘는 경우가 몇 해 없었다. 즉, 터키가 테러 고위험국이 된 것은 지난 2, 3년간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던 테러가 인접국가인 터키로 확산된 측면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증가한 것도 원인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에도 테러가 발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에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존재하여 왔었다.

(1) 테러발생의 추세



(2) 테러집단

과반수의 테러가 Kurdistan Workers' Party (PKK)의 책임이고 IS가 그 다음으로 큰 10% 정도의 테러에 대한 책임이 있다. Kurdistan Workers' Party (PKK)와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터키 내에서 테러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름	빈도수	%
Civil Protection Units (YPS)	2	0.37
Devrimci Halk Kurtulus Cephesi (DHKP..)	4	0.74
Fetullah Terrorist Organization	1	0.19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56	10.37
Kurdistan Freedom Hawks (TAK)	13	2.41
Kurdistan Workers' Party (PKK)	355	65.74
Peace at Home Council	20	3.70
Peoples' United Revolutionary Movemen..	1	0.19
The Independent Military Wing of the ..	1	0.19
Unknown	87	16.11
합 계	540	100.00

(3) 테러공격의 유형

테러리즘의 추세나 테러집단의 구성에 있어서 터키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테러공격의 유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폭탄테러가 1위, 무장공격의 2위의 테러공격 유형이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123	22.78
Assassination	17	3.15
Bombing/Explosion	334	61.85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21	3.89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1	0.19
Hostage Taking (Kidnapping)	9	1.67
Unarmed Assault	1	0.19
Unknown	34	6.30
합 계	540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터키는 테러공격 대상의 과반수가 공권력(군대와 경찰)인 특징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주된 대상은 민간인과 사유재산이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터키의 특성은 제1의 테러집단이 Kurdistan Workers' Party (PKK)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PKK의 목적이 터키정부에 대항하여 쿠르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KK의 독립쟁취투쟁을 과연 테러리즘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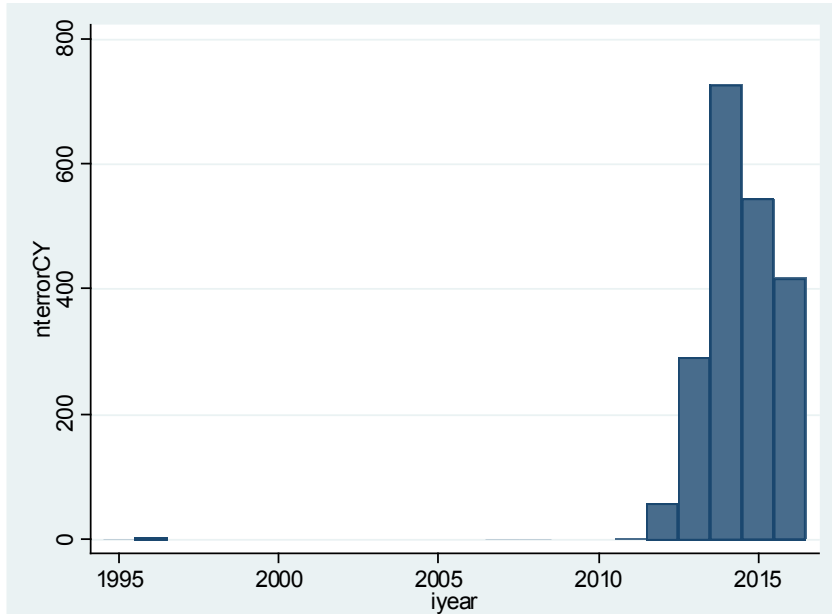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1	0.19
Business	23	4.26
Educational Institution	16	2.96
Food or Water Supply	1	0.19
Government (Diplomatic)	3	0.56
Government (General)	25	4.63
Journalists & Media	10	1.85
Military	194	35.93
Other	6	1.11
Police	93	17.22
Private Citizens & Property	102	18.89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5	0.93
Terrorists/Non-State Militia	21	3.89
Tourists	1	0.19
Transportation	5	0.93
Unknown	30	5.56
Utilities	4	0.74
합 계	540	100.00

10) Libya

리비아에서는 2016년에는 417 건, 2015년에는 그보다 많았던 543 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다. 다음의 그래프는 테러가 리비아에서 최근에-아랍의 봄 이후에-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카다피가 철권을 휘두르던 시기에 리비아는 테러로부

터 안전한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카다피 집권 기간 중에는 독재정권 자체가 평화와 인권에 제일 큰 위협이었을 것이다.)

(1) 테러발생의 추세



(2) 테러집단

ISIS의 두 지역 분파—Barqa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와 Tripoli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가 2016년 전체 테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테러집단들의 테러는 1% 내외로 비중이 작다.

이름	빈도수	%
Al-Fateh Al-Jadid	1	0.24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AQIM)	1	0.24
Ansar al-Sharia (Libya)	2	0.48
Barqa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58	13.91
Benghazi Defense Brigades (BDB)	5	1.20

Fezzan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4	0.96
Gaddafi loyalists	1	0.24
Ghniwah Militia	1	0.24
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JEM)	3	0.72
Kani Brigade	1	0.24
Misrata Brigades	2	0.48
Muslim extremists	1	0.24
Omar Mukhtar Militia	1	0.24
Shura Council of Benghazi Revolutiona..	3	0.72
Shura Council of Mujahideen in Derna	5	1.20
Tawheed Militia	2	0.48
Tripoli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183	43.88
Tripoli Revolutionaries Battalion	6	1.44
Unknown	137	32.85
합 계	417	100.00

(3) 테러공격의 유형

폭탄테러가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이고 다음으로 인질납치가 흔한 공격 유형이다. 대개의 경우 무장공격인데 리비아에서는 인질납치가 2위인 사실이 흥미롭다.

유형	빈도수	%
Armed Assault	44	10.55
Assassination	17	4.08
Bombing/Explosion	167	40.05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23	5.52
Hijacking	5	1.20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3	0.72
Hostage Taking (Kidnapping)	127	30.46
Unknown	31	7.43
합 계	417	100.00

(4) 테러공격의 대상

벵가지 사태의 기억으로 인해서 리비아에서는 외교단에 대한 테러공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2016년 통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과 사유재산에 대한 공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흔한 대상은 군대였다. 테러공격의 대상이란 측면에서 2016년의 리비아는 별로 색다른 점이 없다.

대상	빈도수	%
Airports & Aircraft	5	1.20
Business	30	7.19
Educational Institution	4	0.96
Government (Diplomatic)	1	0.24
Government (General)	35	8.39
Journalists & Media	7	1.68
Maritime	1	0.24
Military	96	23.02
NGO	1	0.24
Other	4	0.96
Police	28	6.71
Private Citizens & Property	139	33.33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9	2.16
Terrorists/Non-State Militia	24	5.76
Unknown	20	4.80
Utilities	13	3.12
합 계	417	100.00

V. 결론 및 요약

중국 정부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설립할 때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테러행위’라 비난하여 한국과 중국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테러리즘을 일본의 입장에서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시각도 문제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된 **database**를 구축하는 것도 또한 매우 힘들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던 테러리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미국 국무성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전 세계 각지의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해서 매년 보고서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舊 『Patterns of Global Terrorism』)로 발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자국의 정부, 기업, 국민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정부, 기업, 국민이 각 지역과 국가에서 직면하게 되는 테러리즘에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과 관점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지만 최근 **open-source data**가 풍부해지고 **big data**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전하면서 정보수집의 문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리즘에 관한 **open-source data**를 사용하여, 세계 도처에서 우리 정부, 기업, 국민이 당면하는 테러위협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양적 데이터를 통해 본 테러리즘의 위협은, 시기별,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종종 유형과 대상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테러리즘의 위협은 최근에 급증한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이는 시간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lobal Terrorism Database**에 나타난 테러리즘의 주요 현황과 추세는 다음과 같다.

-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발생 건수는 2014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은 폭탄테러로서 2016년에는 전체 테러의 52.45%, 2006년에는 전체 테러의 54.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흔한 공격 유형은 무장공격으로서 2016년에는 전체 테러의 20.11%, 2006년에는 전체 테러의 26.81%를 차지했다.
- 지난 11년간 테러의 발생 건수는 약 5배, 테러발생 국가 수는 약 50%가 증가하였지만 테러공격의 유형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한편, 테러공격의 대상은 연도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는 했지만 민간인과 사유재산 다음으로 군대와 경찰이 공격을 많이 받는다.
- 지역적으로 테러의 발생은 아직까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남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집중된 현상이다. 2016년 현재 이들 지역에 전체 테러공격의 84%, 테러로 인한 사망의 94%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테러발생 수가 커다란 차이가 나며, 그러한 차이는 지속적이다.
- 테러공격의 유형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MENA 지역에서는 폭탄테러가 전체 공격 유형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은 무장공격으로서 전체 공격의 33.93%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시아도 MENA처럼 폭탄테러가 가장 흔하지만, 전체 공격에서 폭탄테러의 비중은 40%를 조금 넘어서 MENA의 70.01%보다 낮다. 인질납치는 폭탄테러나 무장공격의 다음으로 흔한 유형이나 그 비중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85%, 남아시아 9.56%, MENA 6.24%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테러공격의 유형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공격의 대상은 유사하다. 세 지역 모두에서 민간인과 사유재산이 가장 흔한 공격 대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공권력 기관, 즉 군대나 경찰 또는 정부가 흔한 공격의 대상이었다.
-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아시아나 MENA,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전 지역을 테러의 위협이 높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프리카는 54개국이 위치한 광대한 대륙이며, 2014년 현재 약 11억 명, 세계전체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있다. 남아시아에는 9개국이 위치하고 있고, 중동에도 10여 개 국가가 위

치하고 있다. 남아시아나 MENA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위치한 70여 개 국가 중에서 실제로 테러가 집중되어 있는 국가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테러로 인한 사망의 4분의 3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60여 개 국가에서는 테러의 위험이 훨씬 적고 사실상 전무한 경우도 있다.

- ‘지역’을 단위로 특정 지역은 테러의 위험이 크고 특정 지역은 테러의 위험이 작다고 결론짓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예컨대 Boko Haram에 의한 테러공격이나 납치-이 마치 아프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처럼 인식되는 경향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테러리즘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분석단위는 ‘지역’보다는 ‘국가’나 ‘테러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테러리즘의 추세나 유형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테러리즘을,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거나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를 잘 파악하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러리즘의 추세나 유형을 지역별, 국가별, 시기별로 이해할 수 있다면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노출을 줄여서 우리 기업의 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그동안 테러위험지역으로 대중적으로는 잘못 인식이 되어왔으나 실제로는 안전하고 잠재성도 높은 지역과는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실제로는 테러의 위험이 높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중적으로 잘못 인식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테러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테러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은 *open-source data*를 사용해서,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정리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이 테러의 위험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1. 외국 자료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 Global Terrorism Index (GTI), 각년 호.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START), 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각년 판.

US State Department,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舊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각년 호.

2. 국내 문헌

김은영. (2016). “대량살상형 테러양태의 변화 분석 연구”. 『국가정보연구』, 9(1), 239-274.

김은영, 박선영. (2013).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의 START 센터의 모범사례의 소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5권, 7-36.

김은영, 박웅섭. (2014). “테러집단, 보코 하람(Boko Haram): 집단의 배경, 활동, 그리고 위협성에 대한 분석”. 『한국경찰연구』, 13(4), 35-58.

윤민우. (2013).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317-347.

윤민우, 김은영. (2013). “폭탄테러의 경향성분석 :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통한 폭탄테러 사건의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경찰연구』, 12(4), 279-310.

정호경. (2013). “우리 군의 해외파병에 따라 GTD를 활용한 테러동향 분석”.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1), 101-116.

한인택. (2016). “아프리카 지역 위협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실패와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외교부 정책용역연구.

An Analysis of Current Trends in Terrorism using the Global Terrorism Database

In order to protect Korean citizens and firms from terrorist attacks at home and abroad, we need a systemic understanding of terrorism and also effective strategies to deal with them. Besides, as a global middle power, we cannot ignore terrorism in other countries and regions. We must understand and respond proactively to terrorism. As a first step, we need to gather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analyze its patterns and trends.

Based on the Global Terrorism Database, this study has analyzed patterns and trends in terrorism across countries and regions. The results show that risk of terrorism varies significantly from year to year, from country to country, and from region to region. Similarly, patterns and targets of terrorism also vary greatly. Terrorist attack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in most cases, and are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countries and regions. National and regional variations in terrorism are persistent over time.

Key words: terrorism, terrorism patterns, terrorism trends, terror targets, the Global Terrorism Database

